<특집: PU 수급전망>

“ PU산업 脫일본 선언 ”

■PU산업과 수요시장
■PPG
■MDI
■TDI

최근 MDI 국산화 및 TDI 2원공급체제 전환으로, 국내 PU시장이 크게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내 PU산업은 지금까지 원료의 일괄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선의 횡포 등으로 인해 시스템 판매를 통한 기술개발보다는 단순형태의 모방판매에만 급급해 왔다.
PU원료 메이커중 국내 유일의 시스템 공급업체였던 한국포리올은 PPG 판매의 선발주자로 일본의 기술을 도입, 국내에 처음으로 포리올을 선보였으며, 당시 정부의 수입규제 등 보호정책 및 수요자 업체의 일본 MDI업체에 대한 시스템 기술제공 요청 그리고 한국포리올의 자체적 노력 등 3박자가 맞물려 하나의 시스템을 형성, 공급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포리올은 물론 PU시스템 시장에서 한국포리올의 위치는 과히 독보적이었다.
그러나 금호미쓰이도아츠가 2만톤 규모의 MDI 정제설비 공장을 건설했고, 한양바스프우레탄이 4만톤 규모의 MDI 합성설비를 완공, 가동에 착수함으로써 국내 PU시장이 일본 의존에서 탈피함은 물론 공급선 다양화로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두 업체는 당분간 Raw Material 판매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나, 점차 PU시스템 판매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한국포리올 등 국내 포리올 업체와의 협조체제가 원만히 유지되지 못할 경우 대기업의 포리올사업 참여가 예상돼, 포리올업체와 MDI업체의 관계가 PU시장 판도 변화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Dow가 한남화학을 통해 PU시스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고, ICI의 한국시장 침투계획, 유공아코의 변화 모색 등이 물고물리는 연결고리에서 고리를 잘라내는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TDI도 한국화인케미칼의 독점공급에서 동양화학의 정상가동에 따라 공급과잉 양상으로 전환되었고, 동양화학은 TDI 참여를 계기로 타 폴리우레탄 원료사업 참여로 사업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원료공급의 다양화 · 자급화 속에서 폴리우레탄산업의 탄력있는 발전을 기대해 본다.

<화학저널 1992/8/1>